

◇ 문화현실 - "증발"을 통해 본 한국 정치영화의 현주소

구경거리로 전락한 정치사건의 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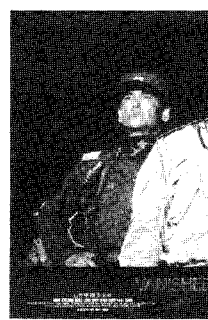
신상옥이라는 고유정사는 1960년대 한국영화산업의 전설이었다. 70년대에는 그의 정치관과 불협화음 관계에 서면서 아인으로 돌아선다. 80년대에는 폭으로 넘어가 적사대장을 맡으며 영화를 찍었다. 그런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영화를 만든 것은 냉전시대가 종식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좀처럼 믿기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번에는 그가 연출한 영화는 6·70년대의 정치상황의 핵심을 다루는 정치영화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미리 앞질러 말하면, 신상옥의 '증발'은 거장의 정호에 걸맞지 않게 엉성하게 만들어진 영화이며, 정치에 대한 접근도 피해의식과 선정주의로 일관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결여에 대해 영화 자체만을 놓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신상옥감독의 예의적인 경력과 정치영화와 연관 짓는 것이 낯설듯이, 한국영화와 정치를 이어서 생각하는 것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한국영화의 정치를 소재의 범위에 넣은 것은 그리 오래전인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정치의 직접적인 통제성적인 검열에 막혀 발언권을 금지당해온 것이 현실이다. 정치영화라는 표현을 내걸고, 대중의 호응도 컸던 영화는 김호선감독의 '서울무지개'가 아마도 처음일 것이다. 5공화국의 최고 권력자의 당시의 여백의 관계를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의 경제 속에서 비정치적 상황을 비추어보았던 이 영화는 정치에 대해 접근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을 전제조건에 놓은 상업적인 추론극으로 평가되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강우석감독의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를 말할 수 있다. 이 영화 역시 대통령선거라는 정치상황을 놓고 미스터리 형식으로 접근하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정치를 세력의 투쟁으로 그려내며 대변하는 추론극으로 평가된다. '서울무지개'와 '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가 결국 안고 있는 결함은 잘

못된 정치관계를 비판하는 제하면서 배신이나 욕망과 같은 상업영화에 익숙한 공식을 어떻게 하면 선정적으로 포장해내느냐에 골몰한다는 점이다.



오른서도 사정이 어찌되었건 간에 그 권력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자신을 정치의 피해자로 보는 지극히 개인적이며 왜곡된 의식이 엮여있는 것이다.

하지만 없다. 그러나 위험한 것은 이렇게 뒤돌린 영화의 화면을 정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라고 착각하는 감독의 의식이고, 그것을 무의식중에 소비하는 대중의 의식이다. 이 영화가 대중에게 어떠한 무기로 소비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름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지닐 수 있는 정치의식의 반영이 이 영화정도로도 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다.

사구의 경우 정치영화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60년대말과 70년대초에 걸쳐 종전되었다. 코스타 가브라스의 정치영화 '7'와 같은 영화가 기만적인 정치 멜로드라마로 격하되고, 정치적 소재를 다룬 프란체스코 로저의 영화가 추론극영화와 비정치적성때문에 비난받았다. 그곳에서도 이제 그런 논의는 먼 과거의 일이 되었다. 한 시기를 끌고 나갔던 전보적인 기운도 사라졌다. 이제 이곳에서도 정치와 관련된 그런 기운이 사라졌다.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정치영화의 모습도 그런 사회적 모습을

'서울무지개' '누가 용의...' '증발'로 이어져 사이비 정치성·선정주의·상업성으로 점철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도덕을 내세우면서 정치를 조종하는 의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신상옥감독의 '증발'은 다른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 역시 본래의 정치영화의 성격에서 논하기보다는, 감독 개인의 심리적 배경에 더 많이 의존하는, 그래서 정치에 대한 접근을 왜곡시킨 또 하나의 예로 남게 될 것 같다. 유시민 보민, 3공화국 시절 권력의 수녀에게 있었던 주인공에 대한(허구화되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인물들이 누구인가는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감독의 정서에는 자신과 주인공을 포개놓은 듯한 흔적이 나타난다. 남과 북에서 누구보다도 해를 많이 받았

그렇게 해서 화면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강압적인 권력을 의기양양하게 행사하는 억압적인 형상에 편입되어 호기롭게 저항하는 부사적인 인물로 설득력이 변모한다.

더욱이 주인공의 파란만장한 경력의 배경을 이루는 6·70년대의 한국정치사는 폭력에 대한 찬양이 없이 선정적인 구경거리로 포장된다. 회색한 권질 이기는 하지만 화면은 정선없이 이어지고, 권력의 이면에 있는 소동과 고도의 정황이 소치할 보여지는 것이다. 어찌와 오늘날의 시대배경은 허구적으로 혼란되는데, 이 허구화된 시공간은 정치적 맥락을 제거하고 구경거리의 정서로 옮기기 위한 장치로 하등

없이, 그러나 선정적으로 변해간다.

'증발'의 주인공은 서울의 심장, 권력의 한 복판에서 시작된다. 이 시작의 의미를 해석하는 영화의 관점 또한 현재없이 부유한다. 하지만 그렇게 맥없이 비정형의 현실로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사라져서 는 안발, 해질녘이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와 정치영화의 모습은 유박지 않고, 따라서 아직 진정한 정치영화라고 정의할 수 없다.

김 영 진
(영화평론가)



독자의 시

새가 내게 와서

신광호(등문·시인)

이제야 가까이 만난다. 내 어릴 적 폭풍 새를 볼 때 얼굴 찡그리고 드러나는 산들이 저마다 푸른 삼각의 탐 세우고 풀꽃과 소나무 숲 바람결에 귀 기울이는 한나절

동해의 태양은 파도를 만들어 내고 어부들 욕심질 물결 밖으로 나간사이 포물선 한 획 긋는 등대지기 새 한마리

문화단신

경희 45주년 도예전

경희 45주년 도예전은 선 옛 여인의 뒷모습 느린 걸음으로 다가온다.

저무는 유리창 밖 하얀 등대를 벗겨 타고 드는 불꽃 하나

가장 가깝고도 멀어버린 마을을 돌아보고 온 잠은 두 눈썹

이빨의 부끄러운 역사 내 어리석은 꿈일지라도 그림자 간직하자는 사물이 참으로 아름답다.

세암씨에 아트 축제

오는 17일부터 24일까지 '우리시대와 영화 6선'이 '세암씨'를 주제로 한 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세암씨'를 주제로 한 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이 페스티벌은 '세암씨'를 주제로 한 아트페스티벌이 열린다.

우리국 '해제비...' 공연

우리국 연구회는 '94 연구회'를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연은 '94 연구회'를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이 공연은 '94 연구회'를 주제로 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제5회 대학주보 시문에 현상공모

"이제는 봉합을 망설일 때가 아닙니다"

우리 대학주보는 경희문화와 함께 해왔습니다. 자기만의 소중한 글을 찾고 함께 읽고 비평하는 자리. 열려있는 문학의 마당에 항상 있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들을 잠재우지 마십시오.

대 학 주 보 사